## 반려동물산업 메카 건국대 내달 최고위과정 4기 시작



김수기 원장

건국대는 농·축산업 쪽으로 유서깊은 대학이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자 건국대는 대학에 특화된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도입했다.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4월 28일 4기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수기 건국대 농축산대학 원장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김 원장은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업도 업그레이드 된다"면서 "지난 30년이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기였다면, 2단계인 지금부터는 질적 향상 및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준비단계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교류의 장이다.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원우회를 만들고 정보를 교류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같은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얻는 아이디어도 많다.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으로 만들어진 원우회는 끈끈한 정을 자랑한다.

최고위 과정 수료생들은 건국대 수의학과와 동물자원학과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최고위 과정 수료 후에도 필요하면 학술적 배경을 가진 교수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코코스 반려동물용 드라이룸 눈길

# 털 말리기 전쟁? 드라이룸 하나면 '뽀송뽀송'

**함마톤 스테인리스 NO 스크래치**
**무정전 제품이라 털 붙는 걱정 싹**
**이기영 대표 "반려인 사이 입소문"**




"우리 아이 목욕 진짜 끝!" 반려동물의 목욕만큼이나 쉽지 않은 몸 말리기 걱정을 덜어줄 코코스 드라이룸. 반려동물을 안에 넣고 버튼만 눌러주면 뽀송뽀송한 모습이 되어 나오는 마법상자 같은 제품이다. 사진제공 | 펫뉴스

반려인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씻긴 후 어떻게 말릴 것인가'다. 성격이 활달한 반려견 같은 경우 목욕 시킨 후 몸을 말리기 위해서는 거의 사투를 벌여야 한다. 아이는 뛰어다니지, 몸은 말려야 하지, 물은 뚝뚝 떨어지지…. 진땀을 빼는 반려인이 한둘이 아니다.

이 같은 반려인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제품이 있다. 코코스 드라이룸이다. 아이들을 드라이룸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난다. 뽀송뽀송해진 아이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드라이룸 밖으로 나온다. 상쾌한 기분에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 행복해진다.

드라이룸을 개발한 코코스는 원래 크리닝 장비와 에어샤워, BFU(Blow Filter Unit) 등을 만들었다. 사람에게 필요한 장비를 동물 쪽으로 방향만 튼 것이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니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이기영 코코스 대표는 반려견 숍을 관찰하다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대표는 반려견을 많이 키웠는데 미용 숍에 가면 씻기는 것보다 말리는 게 중요했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환경이다. 이 대표는 크리닝 장비를 생산하다보니 환경에 민감했는데, 미용 숍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털이 떨어져있었다. 이에 착안해 반려동물 드라이룸을 만든 것이다.

제품을 만든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드라이룸이 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지 사람들이 인식 자체를 못했다. 코코스 외에 드라이룸 개념을 도입한 업체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만큼 혁신적이었다.

기기를 시연하고 차근차근 설득하자 사람들이 드라이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전쟁같은 드라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드라이룸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코코스 드라이룸은 전국 반려견 숍에서 쓰고 있다. 진주의 공군훈련소, 인천공항 검역소 탐지견 센터, 동물병원, 수의과학연구원, 경찰청 같은 곳에도 배치돼있다. 반려견 카페부터 가정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곳이라면 다 들어가는 것이다. 코코스 드라이룸은 함마톤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 고급도장이라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다. 반려견들의 털이 날리지만 무정전 제품이라 털이 붙지 않는다. 가장 골치 아픈 반려동물 배설물에도 강하다. 알루미늄이나 철로 만들면 금세 부식되지만 코코스 드라이룸은 반영구적이다.

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체구에 따라 제품의 크기만 달라진다. 최근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셀프목욕방에서도 코코스 드라이룸을 쓴다. 견고하지 않으면 수많은 반려동물이 드나들 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코코스는 원스톱 체제로 운영된다. 제작, 영업, 판매, 배송, 사후관리(AS)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지역에 수출했을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기영 대표는 "초창기를 제외하면 광고도 안 했지만 반려인들의 입소문을 타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며 겸손해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 김배리 원장 "반려동물 건강 궁금증, 무료로 상담 해드려요"

**야호펫 무료 상담코너서 질의응답**
**반려동물국제연구원 설립 운영도**



김배리 원장

반려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아서 자주 아프다. 몸도 마음도 다치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배리굿7클리닉의 김배리 원장이 나섰다.

김 원장은 최근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야호펫에서 '건강클리닉 무료 상담코너'를 개설했다.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코너를 방문해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한 반려인이 2세 수컷 말티즈와 관련한 고민을 상담받았다.

김 원장이 무료 상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년 전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서 동물병원을 할 때에도 홈페이지에서 하루 10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동물진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무료 상담을 진행하곤 하지만 대부분 손님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이 상술로 끝나곤 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 원장은 "그동안에는 수의사들이 반려동물이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만 치료를 권했지만, 이제는 정신적 부분까지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무료 상담 외에도 반려동물국제연구원(ICM)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아직은 자신이 운영하는 웰니스동물병원 사내연구소이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인원을 갖춰 정식 연구소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김 원장은 "반려인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동물병원은 무조건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수의사에게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면 경우에 따라 비용을 적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저출력 레이저 허리통증전문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허가번호 제허14-842

인체에 무자극/ 안전한 방법

허리에는-허리愛

1. 허리애는 1회 사용시간 40분, 자동세팅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시간 40분이 자동 세팅되며 하루에 2번 사용을 권장하며 4시간 한 번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출력 레이저는 안전합니다.
허리애의 저출력 레이저는 허리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며 통증은 가라앉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650nm 파장과 830nm 파장을 방사하며 10만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3. 전국 100여개 통증크리닉에서 사용중...
소모품이 없어 추가비용이 없고 허리통증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형으로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 (허리에 사용하는 허리띠 기본제공)













허리통증 환자 중 허리통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2%.
수술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통증 등은 적절한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GMP 인정번호 :KTC-ABB-130029






| | |
|---|---|
| 품목명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 레이저파장 | 650/830nm |
| 레이저최대출력 | 5mA |
| 리튬이온배터리 | 3.8V / 3050mA |
| 아답터 | 5V / 1000mA |
| 사이즈 | W125xD94xH18mm |
| 무게 | 195g |

무료상담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썬모아

서울사당지사: 02-6085-4414

KMDIA 참여 번호 2015-GN1-01-24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